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잠재력을 믿으며 쉽게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자조할지 모르지만
 개인의 발전을 넘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지니려 합니다.
 비상하는 한전KDN은 성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날개는 여전히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TALKING TOGETHER



- 04 Column
비상(飛上), 그 시작은?
- 08 공감 채널
여름아, 노래를 부탁해!

SHARING VALUE



- 10 Special Theme
한전KDN, 2025 新비전 선포,
새로운 미래를 향한 비상
_ 미래 에너지 가치를
만들어가는 ICT 공기업
- 14 청렴 특집
제4회 빛가람 청렴문화제
- 17 사회적 가치
한전KDN,
우수협력사 인증
수여식 및 간담회
_ 우수협력사 7개사 선정

CREATING TOMORROW



- 20 Power ICT Solution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현장진단 도구
- 22 최신 ICT 트렌드
인공지능 챗봇이 만드는
비즈니스 미래

HEALING TIME



- 24 KDN 둘레 찾기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계곡여행
- 28 Refresh
영화 <비긴 어게인>
도서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
- 30 지역의 멋과 맛
풍천 장어

KDN NEWS



- 32 News
2018년도 전사 리더 워크숍 외
- 34 KDN 에티켓
한전KDN 헬스장 에티켓
- 35 WITH KDN
청렴공모전 포스터 분야 수상작
독자 참여 안내

· 글 김동준 innoCatalys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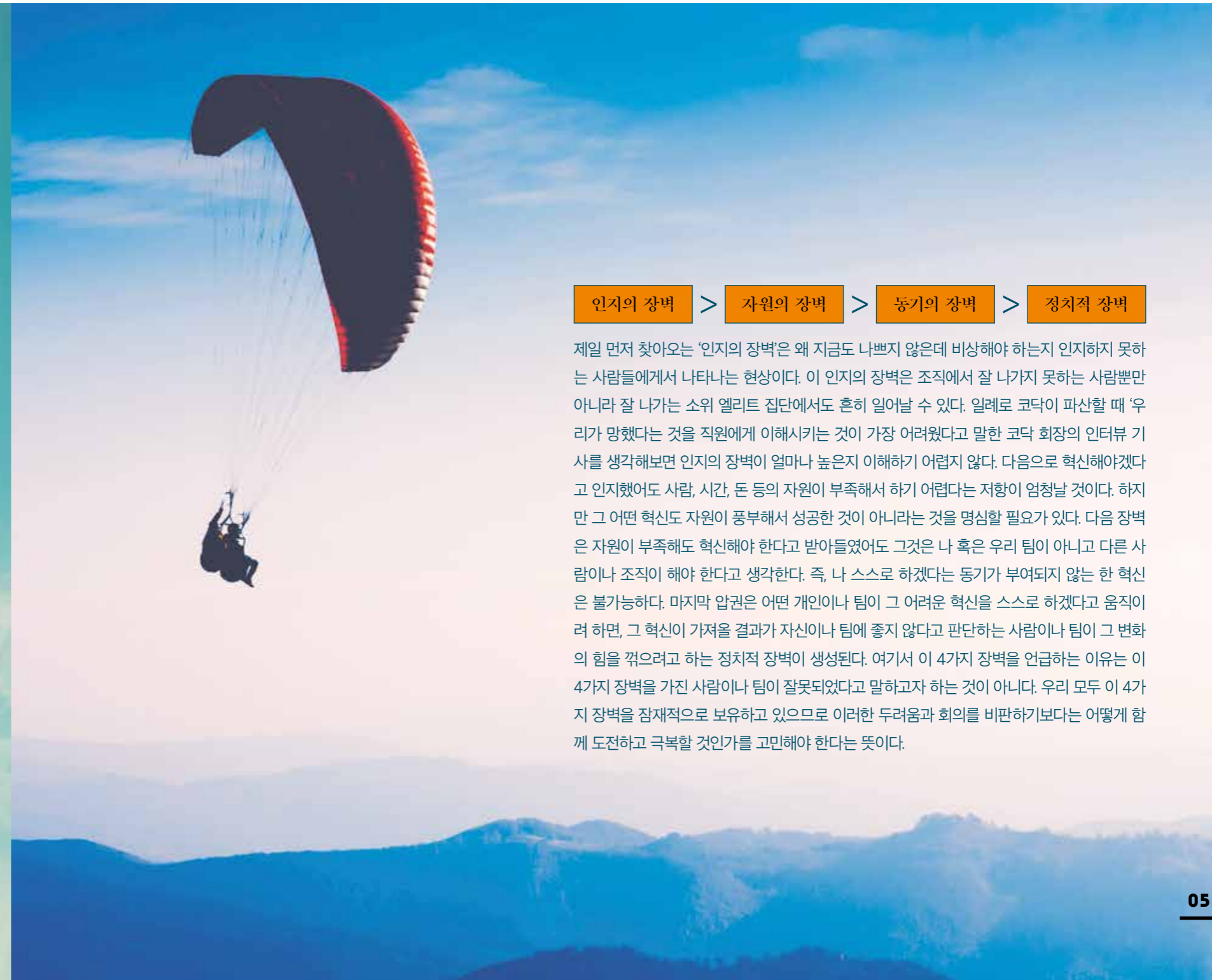
비상(飛上), 그 시작은?

‘비상(飛上)’은 ‘높이 날아오른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기업은 지금까지 날아오르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그저 열심히 앞으로 질주하는 법만 배워왔다. 그래서 날아오르고 싶어도 어떻게 날아올라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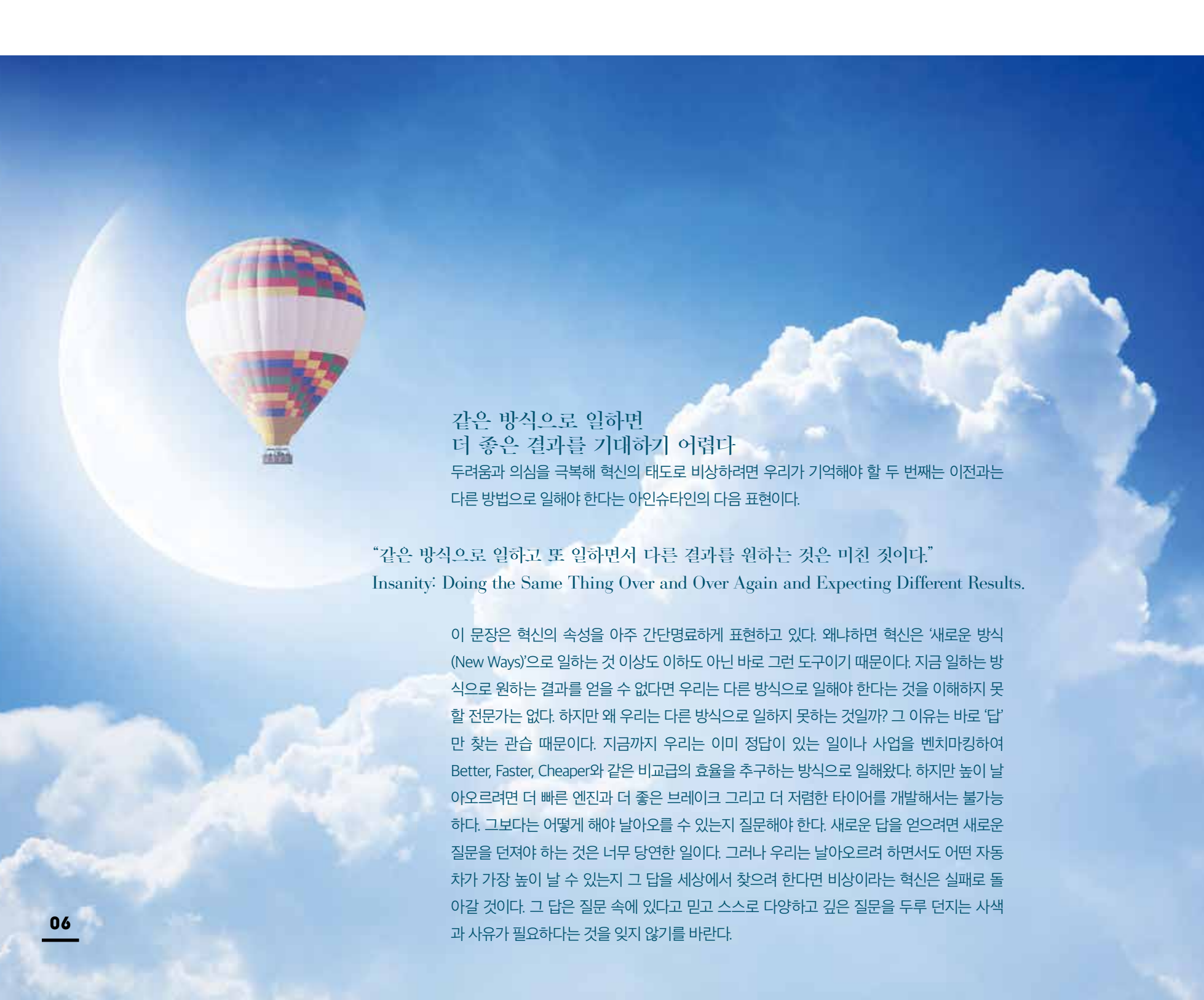
높이 난다는 것은 분명 두려운 일이다

비유하자면 지금까지 우리 기업은 빠르게 달려야 하는 자동차와 같았다.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 평지에서 더 빨리 달리는 방법에 전념해 왔다.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로 불리는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X축의 평지를 더욱더 빨리 달리기보다는 Y축으로 고도를 높여 날아올라야 한다. 즉, ‘비상(飛上)’해야만 한다.

사실 우리 모두 어떻게 해야 날아올 수 있는지 그 결과는 아주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비행기가 되는 것이다. 자동차가 달리는 메커니즘으로는 아무리 빨리, 비행기보다 빨리 달린다고 해도 날아올 수는 없다. 날아오려면 비행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가 비행기가 되려면 아주 큰 변화를 각오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거의 모든 것을 바꾸는 혁신이라는 도전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도전을 마주하게 되면 개인도 조직도 두려움(Fear)과 회의(Skepticism)에 직면하게 된다. 이럴 때 두려움과 회의가 없어야 한다고 부정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에 실패하게 된다. 비상을 위한 혁신이라는 큰 변화에 성공하려면, 일단 변화하려는 사람이나 조직은 모두 두려움과 회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 후 두려움과 의심(Skepticism)에 어떻게 도전하고 극복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이 거대한 변화를 시작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각자 개인이 느끼거나 인지한 두려움과 의심을 팀 혹은 조직 내부에서 공유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두려움과 의심은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의 장벽으로 개인과 조직에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인지적 장벽’은 왜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비상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인지적 장벽은 조직에서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잘 나가는 소위 엘리트 집단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다. 일례로 코닥이 파산할 때 ‘우리가 망했다는 것을 직원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한 코닥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생각해 보면 인지적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다음으로 혁신해야겠다고 인지했어도 사람, 시간, 돈 등의 자원이 부족해서 하기 어렵다는 저항이 엄청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혁신도 자원이 풍부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벽은 자원이 부족해도 혁신해야 한다고 받아들였어도 그것은 나 혹은 우리 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나 스스로 하겠다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한 혁신은 불가능하다. 마지막 압권은 어떤 개인이나 팀이 그 어려운 혁신을 스스로 하겠다고 움직이려 하면, 그 혁신이 가져올 결과가 자신이나 팀에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나 팀이 그 변화의 힘을 꺾으려고 하는 정치적 장벽이 생성된다. 여기서 이 4가지 장벽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4가지 장벽을 가진 사람이나 팀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 이 4가지 장벽을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두려움과 회의를 비판하기보다는 어떻게 함께 도전하고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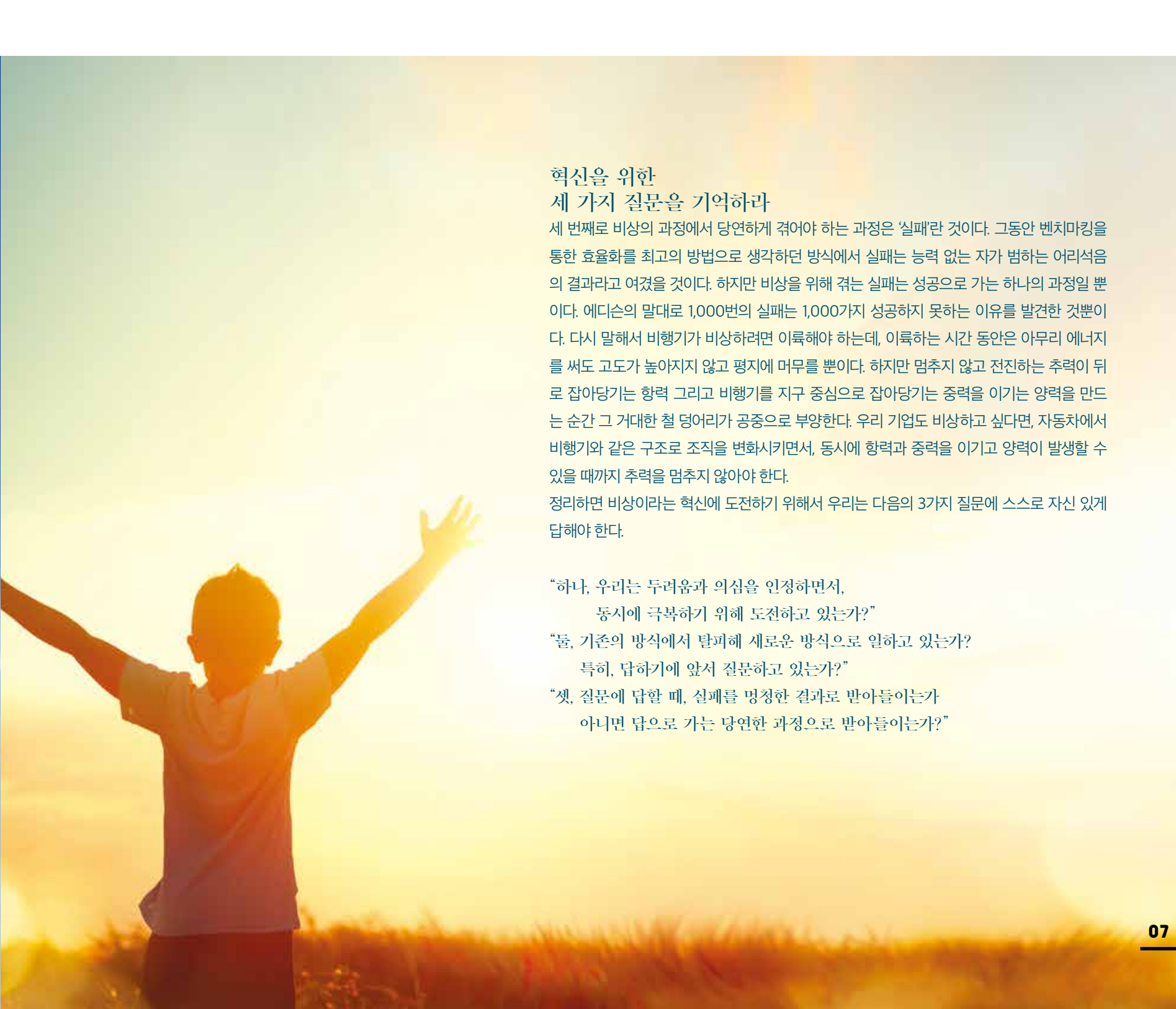
같은 방식으로 일하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해 혁신의 태도로 비상하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해야 한다는 아인슈타인의 다음 표현이다.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또 일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은 미친 것이다.”

Insanity: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이 문장은 혁신의 속성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 왜냐하면 혁신은 '새로운 방식(New Ways)'으로 일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바로 그런 도구이기 때문이다. 지금 일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전문가가 없다. 하지만 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답'만 찾는 관습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미 정답이 있는 일이나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Better, Faster, Cheaper와 같은 비교급의 효율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일해왔다. 하지만 높이 날아오르려면 더 빠른 엔진과 더 좋은 브레이크 그리고 더 저렴한 타이어를 개발해서는 불가능하다. 그보다는 어떻게 해야 날아오를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새로운 답을 얻으려면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날아오르려 하면서도 어떤 자동차가 가장 높이 날 수 있는지 그 답을 세상에서 찾으려 한다면 비상이라는 혁신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그 답은 질문 속에 있다고 믿고 스스로 다양하고 깊은 질문을 두루 던지는 사색과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혁신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라

세 번째로 비상의 과정에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과정은 '실패'란 것이다. 그동안 벤치마킹을 통한 효율화를 최고의 방법으로 생각하던 방식에서 실패는 능력 없는 자가 범하는 어리석음의 결과라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비상을 위해 겪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에디슨의 말대로 1,000번의 실패는 1,000가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한 것뿐이다. 다시 말해서 비행기가 비상하려면 이륙해야 하는데, 이륙하는 시간 동안은 아무리 에너지를 써도 고도가 높아지지 않고 평지에 머무를 뿐이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추력이 뒤로 잡아당기는 항력 그리고 비행기를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을 이기는 양력을 만드는 순간 그 거대한 철 덩어리가 공중으로 부양한다. 우리 기업도 비상하고 싶다면, 자동차에서 비행기와 같은 구조로 조직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항력과 중력을 이기고 양력이 발생할 수 있을 때까지 추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정리하면 비상이라는 혁신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3가지 질문에 스스로 자신 있게 답해야 한다.

“하나,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가?”

“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가?”

특히, 답하기에 앞서 질문하고 있는가?”

“셋, 질문에 답할 때, 실패를 명칭한 결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답으로 가는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가?”

여름아, 노래를 부탁해!

여름이 이렇게 더웠었나?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한전KDN 사우들은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며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이에 <KDN Life>에서는 듣기만 해도 시원하고 청량한 '퇴근 시간에 듣고 싶은 여름 노래'를 설문 조사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전KDN 임직원 여러분이 추천한 회사 퇴근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 BEST 5를 지금 바로 소개한다.

1

해변의 여인 / 쿨 25표

듣고 나면 당장이라도 여름 휴가가 생각나는 노래 / 우승진
가수 이름부터 시원하다. 와우 여름이다! / 김형식
여름이면 어딘가에서는 꼭 들어봤을 법한 90년대의 향수까지 담긴 노래인 듯해서 / 정윤식
즐거분하게 바다에 가는 기분으로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은 노래 / 안승현
현장에서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기분이라 추천 / 문성민



I ♥ MUSIC



여름아! 부탁해 / 인디고 22표

여름, 바다, 파도, 해변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신나는 여름 대표곡! / 최지선
시원하고 청량한 여름 노래하면 딱 떠오르는 곡 / 이인규
귀엽귀움한게 설레고 엔도르핀을 뽐뽐한다 / 김준수
기다렸던 여름 휴가가 떠오르는 노래 / 안용성
여름이니까 우리 회사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 박종욱

2



여름 안에서 / 서연, 듀스 21표

바다가 그려지며 편안해져서 / 전익재
추억 돋는 여름 노래 / 박동균
여름? 이 노래 빼면 안 되지~ / 김민기
연인과 여름 해변의 풍경이 연상되는 노래 / 정승수
더운 여름에 바닷가를 가지 않아도 바다에 있는 느낌의 노래 / 최정호



Hello! SUMMER



바다의 왕자 / 박명수 13표

여름 휴가를 떠올리며 즐거움을 주는 노래 / 이재정
무더위를 날려줄 흥겹고 유쾌한 노래 / 신만섭
시원한 느낌이 나는 노래라 상큼하고 좋다 / 손대성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름 노래 / 신소현
여름이면 마음을 들뜨게 하는 노래 / 박희섭

냉면 / 명카드라이브 11표

퇴근 시간, 더위에 지치면 생각나는 시원한 음식이기 때문에 / 장한별
노래만 들어도 시원하고 즐거운 마음이 생겨서 / 전관수
여름에 가장 많이 먹는,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이고 들으면 시원하고 즐거워짐 / 이송우
여름엔 역시 냉면이지! / 최홍원
시원한 음식을 생각하면 시원하다! / 유창민



한전KDN, 2025 新비전 선포, 새로운 미래를 향한 비상

미래 에너지 가치를 만들어가는 ICT 공기업



한전KDN은 지난 7월 10일 경영진, 본사 임직원, 전국 사업소장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 이전 3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新 비전을 발표하는 「2025 新 비전 선포식」을 본사 빛가람 홀에서 개최하였다. 18년도 신입사원 대표의 개회 선언으로 개최된 이번 비전 선포식은 <사사 영상 상영, CEO 인사말과 노조위원장의 축사, 외부인사 축하 영상, 비전 선포, 2025 경영전략에 관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선포된 新 비전은 'Smart Energy ICT Leader, KDN(혁신과 상생으로 미래 에너지 가치를 만들어가는 ICT 공기업)'이며, 에너지 ICT 리더로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기의 변화를 선도하고, 새로이 飛上하고자 하는 KDN의 포부가 담겨있다. 향후, 한전KDN은 비전선포식에서 발표된 2025 新 비전을 적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전, 飛上하는 KDN'이라는 경영 슬로건 하에 세부 이행 계획을 빈틈없이 시행하여 Smart Energy ICT Leader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Vision 2025 경영 슬로건: 새로운 도전, 飛上하는 KDN

새로운 도전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의 에너지 패러다임 大 변혁기 도래에 따라, KDN은 에너지ICT 리더로서 변화를 선도해야 할 '새로운 도전'을 시작
飛上하는 KDN	혁신과 상생으로 미래 에너지 가치를 창조해 나감으로써 새로이 '飛上'하겠다는 Vision 2025 달성 의지를 표현

1. 비전선포를 위해 무대에 선 한전KDN 임직원
2. 한전KDN 임직원의 2025 新비전 선포
3. 비전선포식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박성철 사장
4. 비전선포식에 참관한 한전 KDN 임직원
5. 개회 선언을 하는 18년도 신입사원 대표
6. 비전선포식에서 축사 중인 김진수 노조위원장





1, 2. 오프닝 공연 _ 길놀이
3. 비전 선포 미디어 퍼포먼스
4. 중간 공연 _ 인풍
5, 6. 마무리 공연 _ 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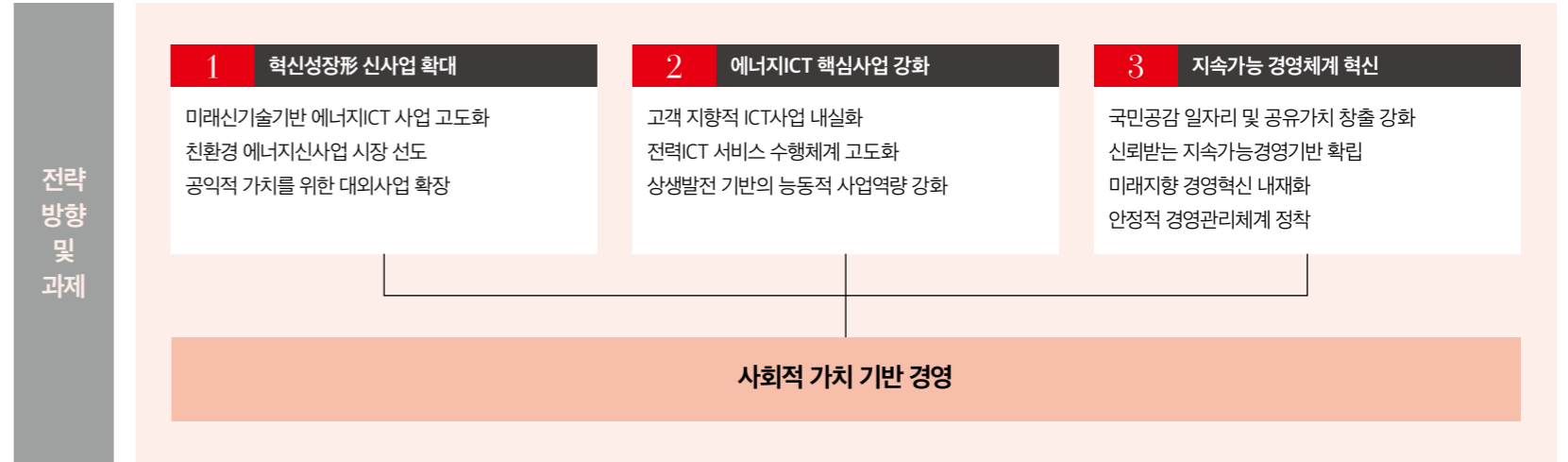
Vision 2025 전략 체계도

Mission 전력ICT 기술 전문화 및 고도화를 통해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

Vision 2025 Smart Energy ICT Leader, KDN
혁신과 상생으로 미래 에너지 가치를 만들어가는 ICT 공기업

경영 목표

- 혁신 성장**
 - 매출액 1조
 - 신사업 매출액 3,000억 원
 - R&D 사업화 금액 1,500억 원
- 에너지ICT 서비스 고도화**
 - 핵심전문가 500명 확보
 - 에너지ICT 서비스 향상*
- 사회적 가치 제고**
 - 일자리 창출 50,000개
 - 지속가능경영등급 AAA
 - 청렴도 1등급



핵심 가치

BEST KDN!

- Beyond 혁신**
- Expertise 전문성**
- Social Value 사회적 가치**
- Together 협력**

* 통신, 전산, 계통의 한전 등 SLA 계약상 서비스 요구 수준(목표 수준)을 달성하고, 사업별 미래사업 목표 달성

제4회 빛가람 청렴문화제

청렴인, 새로운 천년의 약속



청렴은 새로운 천년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제4회 빛가람 청렴문화제가 지난 7월 9일 전라남도청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닷새간 개최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주관한 '빛가람청렴실천네트워크' 25개 기관·단체장과 임직원, '빛가람청렴문화제'를 후원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에서 한전KDN 박성철 사장은 김영록 전남도지사로부터 공로감사패를 받았다. 4회째를 맞는 빛가람청렴문화제는 한전KDN에 있어 남다른 의미가 있다. 한전KDN이 주도하여 이전기관·지자체 간 협업으로 2015년 9월 개최된 "제1회 빛가람청렴문화제"를 시작으로 '빛가람청렴실천네트워크'가 구성되고 마치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이 "빛가람청렴문화제"가 2회, 3회를 거쳐 올해 4회째를 맞았다. 애초 4개 기관이 참여했던 '빛가람청렴실천네트워크'에 이제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를 포함한 2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니 외형적인 성장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회 빛가람청렴문화제를 후원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그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문화 확산 우수사례로 선정, 청렴클러스터 정책에 반영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확산되어 명실상부한 전국적 청렴문화 확산운동의 브랜드가 되었다.



1. 빛가람청렴문화제 개막식 중 청렴협약식
2. 김영록 전남도지사로부터 공로감사패를 받는 한전KDN 박성철 사장
3. 축하하는 박은정 국민권의 위원장
4. 전남도립국악단 개막 축하공연



이에 새로운 천년의 광주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진정한 민관협력 청렴사회의 밑바탕을 마련하는 데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날 공로패를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청렴문화제에서 한전KDN이 준비한 프로그램은 「협력사 청렴상생워크숍」.

「빛가람실천네트워크」 협력사 대표 및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11일 오후 4시 교육관 비전룸에서 진행된 이 날 워크숍은 「청탁금지법」, 「부패·공익신고 보호제도」 및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 등 정부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홍보와 교육, 설문조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연 1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공직자와는 달리 민간 기업은 의무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기관과 거래하며 맞닥뜨리는 매우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칫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에 협력사와의 청렴상생에 있어 청탁금지법 등 정부 반부패 정책에 대한 민간기업의 이해를 돕고 공공과 민간이 청렴의식을 공유하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기획하였다.



1. 청림문화제에 참석한 한전KDN 박성철 사장과 이오석 감사
 2. 윤리경영과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교육 중인 윤리경영원 양세영 원장
 3. 협력사 청림상생 워크숍

홍종일 기획관리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림실천을 위한 협력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윤리경영과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한 윤리경영원 양세영 원장의 교육과 질의응답까지 참석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였다. 기관들의 업무가 다양한 만큼 협력사들도 다양했지만, “청림”이라는 이슈로 한자리에 모여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 청림은 새로운 천년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인 것이다. 7월 조직개편으로 청림윤리 업무가 이제 청림윤리 “경영”으로 더욱 강화되어 전략기획처 윤리준법팀으로 이관되었다. 이는 청림윤리 가치를 경영활동에 반영하겠다는 박성철 사장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한전KDN은 앞으로도 청림문화 확산 등 청림정책 뿐 아니라 신정부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시라!

Sharing Value

사회적 가치

한전KDN, 우수협력사 인증 수여식 및 간담회

우수협력사 7개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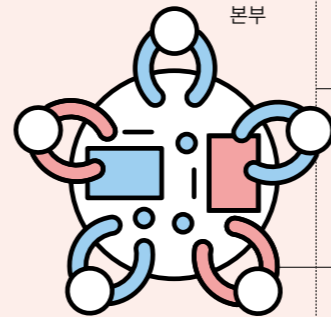
한전KDN은 지난 6월 2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협력사 인증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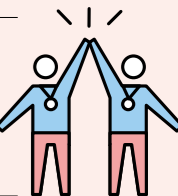


바인텔레콤(주), 새일시스템즈(주), (주)싸이몬, (주)아리넷웍스, (주)아이티스퀘어, (주)에이바이트, (주)엑셈 등 7개사는 뛰어난 기술력과 탁월한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한전KDN과 상생협력한 점을 인정받아, 2018년도 우수협력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가지게 되었다. 이들 우수협력사에는 1년간 계약이행보증금을 면제해주고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가점을 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금년에는 추가로 한전KDN 사보, 홈페이지, 사내방송을 통해 홍보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전시회 참가 시 부스 임대 및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박성철 사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에너지ICT 분야의 발전은 무궁무진하므로 협력사와의 기술협력 강화와 지원 방안도 모색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수협력사들은 “한전KDN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우수협력사의 IT기술력을 접목하여 같이 성장하자”라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한전KDN은 올해에도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에너지ICT 분야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2018년도 우수협력사 선정 현황					
추천 부서		업체명	대표자	회사 정보	선정 사유
본부	처/원				
ICT 사업 본부	정보통신 사업처	바인텔레콤(주)	홍광일 김정현	http://vinetel.co.kr ☎ 031-477-7800	통신분야(보안·감시, N/W 시스템, 광전송장비 등) 납품 및 유지 보수 1. 정보통신위탁용역 사업, 특히 전력ICT설비 안정화에 기여 - 변전소 종합계량정보시스템 검침모뎀 적기 자체 납품 ('14.4 ~ '17.11) - 설비 유지보수 전문인력을 통해 최적의 기술 지원 ('10.5 ~)
	전력IT 사업처	(주)엑셈	조종암	http://www.ex-em.com ☎ 02-6203-6300	S/W 패키지 납품 및 유지 보수 1. 한전 'IT인프라 구축분야' SW패키지 납품사업 성공적 수행 - 자연 요소 최소화 및 효율적인 일정 관리로 안정적 사업 추진 기여 2. 한전 'IT인프라 유지 보수 분야'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 - 시스템 장애 시 우수인력 적기 투입하여 성공적 사업 수행에 기여 3. 컨소시엄으로 '한전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성공적 완수 - 업무 협력 긴밀로 사업 성공 [한전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17.12.)]
	AMI 사업처	(주)아이티스퀘어	조경철	www.it-square.co.kr ☎ 031-427-7603	AMI시스템 중 DCU용 프로브 설계, 개발, 생산 / 상생협력 업체 1. 중소기업 협력R&D 과제 성공적 수행 ('16.1 ~ '17.12) - 과제명: 저압 DCU Probe 제품 개발 및 N상 CT금형 제작 (1.5억 원) - 효과: 정밀도·내구성↑ (국제규격 만족), AMI기능 고도화 (누설전류 측정) - 기타: KDN과 공동으로 기술특허 2건 출원 중
에너지 융합 사업 본부	전력 융합 사업처	새일시스템즈(주)	이동성	www.saeilsystems.com ☎ 031-742-1305	지중 배전분야 감시 시스템 납품 및 구축 / 상생협력 업체 1. 배전전력구 종합감시시스템 (지중 배전분야) 구축 기여 - 종합감시시스템 주자재 (RTU) 자체 제품 개발 보유로 구축사업 기여 2. 중소기업 협력R&D 과제 성공적 진행 중 ('17.12.22 ~ '18.6.11) - 과제명: 다용도 현장처리장치 (수용성 강화) 개발 (0.7억 원)
	배전 사업처	(주)싸이몬	안재봉 등 3명	www.cimon.co.kr ☎ 1899-5001	배전지능화용 단말장치 납품 및 기술 지원 1. FRTU 납품사업의 안정적인 기자사업 수익기반 확보에 기여 - 모든 제품에 대해 불량률 없이 적기납품 시행 2. 신속한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와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 3. 고저항단선사고 (HIF) 상시 감지·제어 체계 구축 - 정전, 화재 등 대국민 안전사고 억제에 기여
발전 보안 사업 본부	발전ICT 사업처	(주)아리넷웍스	성동식	http://www.arincn.co.kr ☎ 02-497-4660	N/W 및 보안설비 구축과 유지 보수 1. H/W (네트워크 및 보안설비) 구축 사업에 중요한 파트너 - '17년 중부발전 '본사 데이터센터 구축' (120.8억 원) 적극 지원 2. 회사 기자사업인 발전사 위탁용역 성공적 수행에 많은 기여 - 우수인력 투입, 설비장애 시 신속 처리, 신속한 예비품 조달 등
	정보 보안 사업처	(주)에이바이트	나성일	http://abyte.co.kr ☎ 02-544-1011	정보보안 및 N/W 전문 업체 1. 한전, 서부발전 등 정보보안설비 적기 공급으로 성공적 사업 수행 - 특히, 구축 전후 발생 가능한 하자/장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 2. 고품질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 기술지원으로 KDN 기술력 향상에 기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현장진단 도구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일부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을 비롯한 충전 인프라는 점증적으로 확산 중이다.

고객 눈높이에 맞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 운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기는 설치 위치의 특성 때문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기도 한다. 날씨 등 환경의 영향으로 충전기가 부식되거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파손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한전KDN 담당부서 및 지방사업소 직원들은 남부권역에 설치된 충전기의 고장조치 및 예방 점검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을 위한 전기 장치 외 사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메뉴 디스플레이, 중앙 서버와 통신을 위한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는 중앙 서버의 운영시스템과 통신을 위해 약속된 통신규약이 지켜져야 한다. 충전기 고장은 장치의 파손으로 인한 사용 불능 상태와 통신규약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중앙 서버 간 통신 불능 상태가 있다. 때로는 전기차 충전기는 얼핏 정상 상태로 보이지만, 규약을 벗어나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오작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통신규약 오류는 지금의 점검 방식으로 찾아낼 수 없으며 설명 있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인적 비용이 소요된다. 고장 조치 혹은 예방 점검을 위해 현장에 출동하여 전기차 충전기의 외관 점검뿐만 아니라 충전기의 통신규약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 통신규약 등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보다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진보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현장진단 도구는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터치스크린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현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동이 간편한 단말기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내부 배터리를 장착하여 전원연결 없이 사용 가능하다. 현장 작업자의 편의성과 수행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 정보(충전기 정보, 충전기 펌웨어 파일 등)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 중앙 서버에서 간단히 수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통신규약을 모두 수용하여 충전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다. 현장진단 도구가 제공하는 진보된 기능은 충전기 내부 무결성을 검사하는 것 외에 기존 수행하던 충전기 외관 점검 업무를 신속하고 간결하게 처리하도록 도와준다. 작업자는 점검 결과를 수기로 작성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진단 도구가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고서를 생성하여 중앙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현장진단 도구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파손된 충전기 외관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고장 상태를 이미지 파일로 남길 수 있다. 현장진단 도구 내에서는 점검 이력을 조회하고, 고장 원인 및 조치 방법을 등록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전기차 충전기의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한 후, 검증 결과가 비정상으로 판정될 경우 원인과 해결 방안을 현장진단 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점검 업무가 완료되면, 현장 작업자는 현장진단 도구로 수행한 충전기 외관 및 통신규약 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중앙 서버로 전송한다. 점검 결과는 유실 없이 중앙 서버에서 보관되고, 통계 데이터 등으로 가공되어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 운영에 활용된다. 현장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기 고장에 선제 대응하여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1. 현장진단 도구 외관
2. 현장진단 도구를 활용한 충전기 점검 (LAB 테스트)
3. 현장진단 도구를 활용한 충전기 점검 (현장 테스트)
4. 현장진단 도구 사진 촬영 기능으로 충전기 외관 점검(현장 테스트)



인공지능 챗봇이 만드는 비즈니스 미래

최신 ICT 트렌드

· 글 이세철 <4차 산업혁명, 미래를 바꿀 인공지능 로봇> 저자

인공지능 로봇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기존 산업혁명과 큰 차이점은 육체노동뿐 아니라 정신노동도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 인간의 노동력이 상당 부분 대체된다는 우려는 있지만, 활용만 잘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과 메신저를 결합한 '챗봇'에 주목해보자.

문자 로봇, 챗봇

인공지능 챗봇을 통한 비즈니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챗봇은 말 그대로 '채팅하는 로봇'이다. 딥러닝을 통해 응답 규칙을 습득하고 인간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즉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된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다.

과거, 챗봇은 미리 준비된 질문에만 답변할 수 있었으나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혁이 예상된다. 인공지능 챗봇이 만드는 비즈니스의 미래는 인공지능 음성 인식 OS뿐 아니라 문자 인식도 발전하고 있다. 최근 진행 중인 챗봇은 인공지능과 메신저를 결합한 문자 서비스가 주를 이룬다. 음성 인식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기술적으로 음성 인식보다 더 확실히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챗봇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머신러닝으로 문맥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챗봇이 구현되는 방식은 자연어 이해이다. 챗봇은 인간이 특정한 요청을 입력하면 챗봇 서버에서 이를 분석해 자동으로 응답한다. 챗봇이 자연어 이해를 위해 분석 결과 랭킹과 분석 결과 확장을 진행하고 이를 자연어 관리로 데이터를 만든다. 해당 대화의 의도와 주제를 판단하고 생각이나 복원을 통해 인간의 질문 의도를 분석하고 이를 기억하고 검색한다. 이를 통해 대화를 관리하고 대화 답변을 생성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가장 먼저 챗봇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쇼핑과 같은 유통업이다. 즉 필요한 제품의 가격과 재고 여부를 챗봇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각종 문자 상담 서비스까지 챗봇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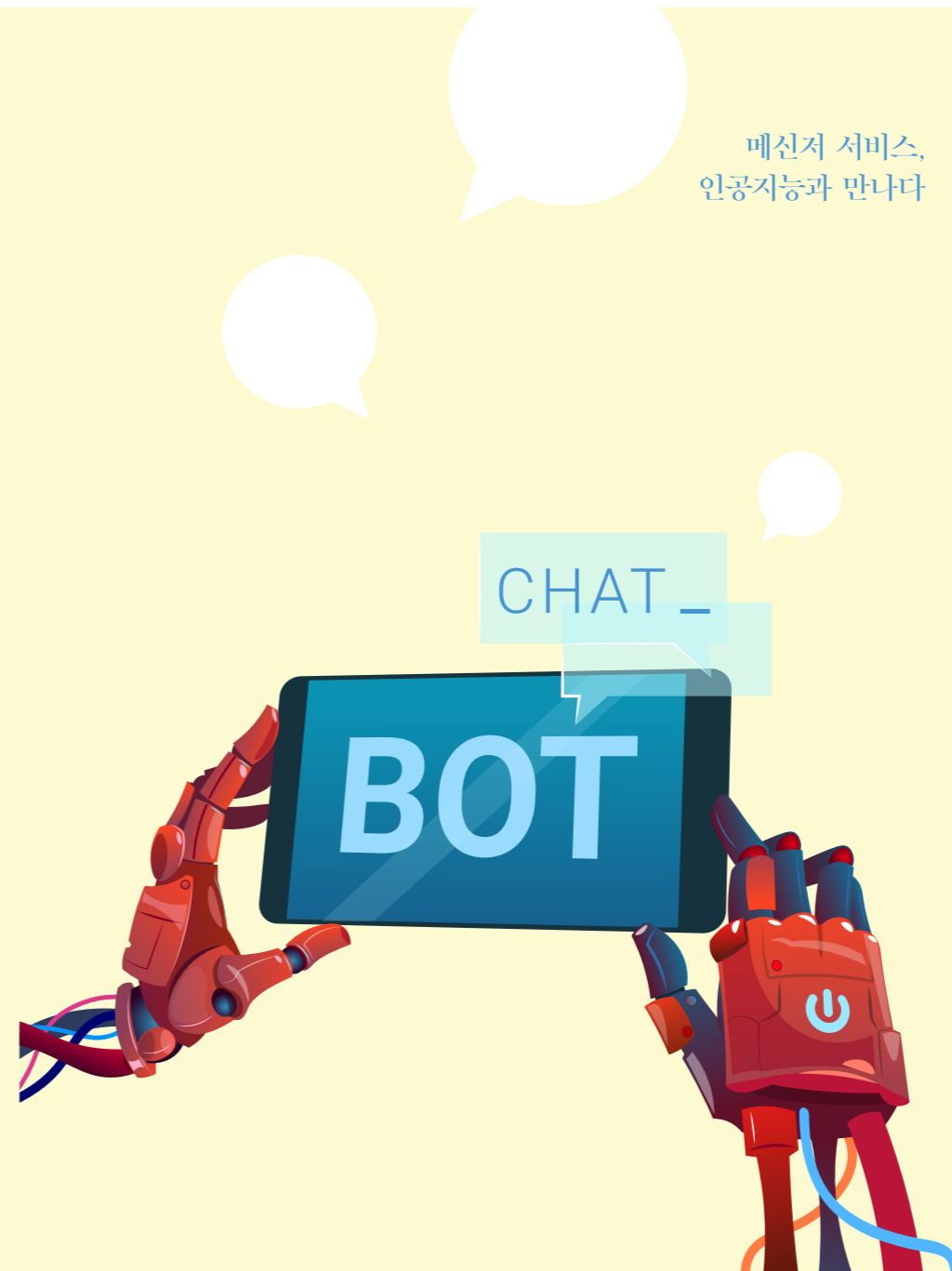
메신저 서비스, 인공지능과 만나다

챗봇의 활용 예를 알아보자. 유니버설 봇으로 분류되는 애플, MS, 구글의 음성인식 서비스부터 고객 CS, 예약, 주문, 금융 상품 상담, 특정한 목적을 위한 서브 봇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다. 챗봇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챗봇 Tay를 대신해 AI 챗봇 Zo를 선보였다.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개발자 대회에서 페이스북의 미래가 메신저에 있다고 연설하며 챗봇 API를 공개한 바 있다. 구글은 알로(Allo), 텐센트는 위챗(WeChat)에서 챗봇을 시연 중이다.

유통 쇼핑에서 챗봇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북미지역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앱인 '킵'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앱은 최근 화장품 회사인 Sephora, 의류회사 H&M 등 16개 기업과 협업해 '봇숍(Bot Shop)'을 열었다. 봇숍에 입점한 회사와 채팅하고 싶으면 메신저 내에서 직접 봇숍 메뉴로 이동해 거기서 원하는 업체를 고르거나, 메신저 상단에 고정된 킵 창에서 '@'를 입력한 뒤 추천해주는 회사명을 고르면 된다. 메신저 업체인 텔레그램도 챗봇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진행한다. 또한 공시정보 알림 봇의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업체의 공시 내용을 실시간 알고 싶다면 해당 업체 앞에 @를 입력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공시 내용을 자동으로 전달받는다.

구글은 2018년,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인 '구글 I/O 2018'에서 사람에게 가까운 음성인식 기반 챗봇인 듀플렉스를 최초로 공개했다. 듀플렉스는 인간과 똑같은 목소리로 식당과 미용실 등을 대신 예약해준다. 단순한 예약 외에도 공휴일 영업이나 예약 가능 여부 등도 대신 확인할 수 있어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즉, 구글 듀플렉스는 구글 어시스턴트 앱의 확장 프로그램이다. 사용자는 구글 어시스턴트에 식당이나 매장에 전화를 걸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 업무를 시킬 수 있다. 듀플렉스는 향후 인간 대신 예약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콜센터를 대체할 것으로 판단된다.

챗봇의 현주소는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챗봇은 인간이 하던 예약, 주문, 금융 상담, 콜센터 업무 외에도 사무실에서 하던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학습을 통해 서비스는 보다 정교해질 전망이다. 챗봇에서 얻는 비용 절감의 파급 효과는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간은 챗봇이 대체할 수 없는 창조적인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계곡여행

‘바다로 가야 하나? 산으로 가야 하나? 계곡으로 떠나야 하나?’ 여름이 되면 행복한 고민이 시작된다. 저마다의 매력은 있겠지만 여름철 만나는 계곡은 더위와 잠시 안녕하게 하는 시원함을 선사해줄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상에서의 탈출 통로가 되기도 한다. 바위 사이로 흐르는 시원한 물줄기, 자연 그대로를 간직한 곳, 얼음장처럼 시원한 물을 만날 수 있는 계곡으로 떠나보자.



Info.

— **지리산 뱀사골**
063-625-8911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와운길 10

— **지리산 피아골**
061-782-1177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로 774

지리산
계곡

뱀사골과
피아골

한국의 명산(名山)으로 꼽히는 지리산. 그 안에서도 명수(名水)로 꼽히는 뱀사골 계곡. 한여름에도 15도 이하의 냉기를 유지하고 있어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 위해 찾는 가족 단위부터 계절을 가리지 않고 트래킹을 즐기는 사람들로 발길이 끊기지 않는 곳이다. 뱀이 죽은 골짜기라 해서 이름 붙여졌지만, 이름처럼 뱀이 굵이굵이 흐르는듯한 물줄기를 따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沼)와 기암괴석은 감탄을 자아낸다. 군데군데 깊은 곳이 있고 돌이 미끄러우니 구명조끼와 아쿠아 슈즈를 준비하면 최고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구명조끼는 무료 대여소에서 빌릴 수 있다.

지리산 북쪽으로 뱀사골 계곡이 으뜸이라면, 남쪽으로는 피아골 계곡도 뒤지지 않는다. 반야봉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약 20km에 걸쳐 흐르는 계곡으로 한여름에도 오싹할 정도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특별함을 원한다면 피아골 입구에 자리잡은 연곡사에서 템플 스테이를 경험해도 좋다. 여름철 템플 스테이를 신청하면 산사에서 하룻밤과 계곡에서의 물놀이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사계절 언제 찾아도 좋지만 피아골은 특히 가을에 더욱 빛을 발한다. 그 어느 곳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데, 특히 연곡사 서부도 주변의 노란 은행나무가 예술이다.



액티비티의 천국 — 고산자연휴양림

1998년에 개장한 고산자연휴양림은 해발 553m 안수산 자락의 계곡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완주군이 조성한 휴양림이다. 봄에는 철쭉과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있어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체력단련을 위한 임간수련장, 숲속의 집, 야영장, 삼림욕장 등 기본적인 시설뿐 아니라 계곡을 막아 만든 물놀이장은 여름철 아이들의 더위를 식혀줄 장소로 사랑받는다. 고산자연휴양림에서는 좀 더 특별하게 무더위를 날릴 방법이 있다. 자연 지형지물을 이용해 공중에 와이어와 로프로 자연 속에서 모험심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든 친환경 레포츠 시설인 에코 어드벤처다. 1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해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어 가족애가 돈독해진다. 휴양림과 멀지 않은 곳에는 바라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위봉폭포가 있으니 함께 둘러봐도 좋다. 위봉산성 동문 쪽에 위치한 폭포로 60m 높이에서 2단으로 쏟아지는 물줄기는 주변의 기암괴석, 울창한 숲과 어우러져 멋진 장면을 연출한다.



원시림의 아름다움 — 백운산 성불계곡

광양시 봉강면의 백운산 봉우리인 형제봉과 도솔봉 사이에서 발원한 성불계곡은 성불사를 기준으로 약 2km 이어진 계곡이다. 봉강면에 위치해 봉강계곡이라 부르기도 한다. 옥룡면의 동곡계곡, 진상면의 어치계곡, 다압면의 금천계곡, 봉강면의 성불계곡을 백운산의 4대 계곡으로 꼽는데 성불계곡은 4대 계곡 중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넓고 평평한 바위가 많고 삼림이 수려해 피서를 즐기기에 더 없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아기자기한 웅덩이가 즐비해 천연 풀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계곡을 따라 자리잡은 산장에서 평상을 대여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양념 닭구이도 별미다. 뼈를 발라 먹기 편해서 남녀노소 호불호가 없다. 여름철 주말이면 계곡을 찾는 사람이 많아 정체가 심해지니 가급적 이른 아침에 찾는 것이 좋다.



Info.

- 완주 고산자연휴양림
063-263-8680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 성불계곡
061-797-3333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성불로 1150-14



Begin Again!

최근 해외 버스킹을 주제로 인기를 얻었던 음악 예능 '비긴어게인'을 보고, 4년 전 개봉했던 당시, 인상 깊게 봤던 영화 <비긴 어게인>이 생각나 다시 보았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로맨스 음악 영화일 수 있지만, 나에게 이 영화는 음악을 통해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어른들의 이야기였기에 긴 여운이 남았고 한동안 OST인 'Lost Stars'를 매일같이 들었던 기억이 있다. 존 카니 감독의 영화 <비긴 어게인>은 싱어송라이터인 그레타(키이라 나이틀리)가 연인 데이브(애덤 리바인)를 따라 뉴욕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스타 반열에 오른 데이브로부터 버림받으면서 시작된다. 오랜 음악적 파트너와 이별한 슬픔에 잠긴 그레타는 라이브 바에 들러 자신의 자작곡을 노래하고, 마침 바를 방문한

프로듀서 댄(마크 러팔로)이 이를 발견하여 그레타에게 음반 제작을 제안한다. 하지만 댄은 명성을 잃은 지 오래인 음반 프로듀서였기에 제대로 된 녹음실을 구할 여력이 없었고, 결국 그레타와 함께 거리 밴드를 결성하여 뉴욕의 거리를 스튜디오 삼아 그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노래를 하나둘 만들어간다. 댄에게도, 그레타에게도 음악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이다. 그런 댄이 오랫동안 성공적인 음반을 만들지 못해 겪었던 슬럼프와 이로 인한 가족들과의 불화 그리고 그레타 역시 음악적 파트너였던 연인 데이브와의 이별을 겪으면서 가지고 있던 상처를 음악이라는 소재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치유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영화 속 댄의 대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다. "난 이래서 음악이 좋아. 지극히 따분한 일상의 순간까지도 의미를 갖게 되잖아. 이런 평범함도 어느 순간 갑자기 진주처럼 아름답게 빛나거든. 그게 바로 음악이야."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다. 영화 속 주인공들에게는 음악이 평범한 삶을 화려하게 바꿔주는 매개체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 속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 즉,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무언가를 하나씩 갖고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그게 음악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도 소확행의 소중한 가치를 잊지 않는 게 아닐까.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치고 기력 없는 사우들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힐링 영화 <비긴 어게인>을 추천한다.

· 글
계통시스템팀
이호길 주임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기 때문에, 고민 없는 사람은 없다. 뜻대로 하기 위해서 또는 뜻을 포기하기까지 수백, 수만 가지 고민을 품었을 것이다. 그중 몇몇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감정소비를 겪을 수 있다. 지금은 잘 기억나지도 않는 고민들이 대부분인데 말이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은 고민을 없애는 또는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설명해주는 책이다.

고민의 원인은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난다고 한다. 그 바라는 마음은 다시 7가지 욕구(생존욕, 수면욕, 식욕, 성욕, 나태욕, 감각욕, 인정욕)로 구분한다. 이런 욕구에 자극을 받아 우리의 감정이 반응하고 있다고 책은 말한다. 때로는 욕구를 채우는 기쁨으로, 때로는 욕구가 이뤄지지 않은 불만이 생기기도 한다. 사람이라면 평생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다양한 욕구 때문에 고민의 발생 원리를 알고, 각 상황에서 나의 욕구를 알아내는 것이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요즘에는 대개 의식주가 안정되어 7가지 욕구 중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다. 나 역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고 싶은 소리를 하면서 많은 감정소비를 했으며 이 때문에 때때로 우울함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와 그 원인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책은 설명한다.

책에서 제시하는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중 내가 공감한 방법은 '말로써 확인하는 방법'이다. 추상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로 표현함으로써 객관적인 이해를 해보는 것이다. "내가 일이 잘 안 되어 화가 났구나, 내가 배고파서 예민하구나."라고 말하고 인지하는 것 자체가 상황에 휩쓸려 실수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감정과 원인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우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다양한 고민과 감정이 주체 없이 커진다고 느껴질 때, 추상적 감정을 객관적인 문장으로 되뇌면서 고민을 멈추는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

이 책의 저자 '구사나기 류순'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로 도쿄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가, 치열한 경쟁의 속세에 허무함을 느끼고 승려가 되었다. 그래서 저자는 불교를 바탕으로 이 책에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설명하는 내용도 '도'를 닦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느껴졌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고민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만 간다고 느껴질 때, 고민을 멈추고 원인을 찾아 해결할 힘을 가진 '득도한' 한전 KDN 사우가 되길 바라면서 이 책을 추천한다.



풍천 장어



글
전호용

『만지일보』에 「알고나 먹자」, 「야만인을 기다리며」를, 『한겨레21』에 「아정잡살 건들잡살」을 연재했다. 저서로 「알고나 먹자」, 「네 맛대로 살아라」가 있다. 공사판 막일꾼, 인쇄소 직공, 화물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틈틈이 조리사 자격증을 땀고 거의 모든 요리를 섭렵했다. 몇 차례 식당 개업 후 지금은 전주에서 심야식당을 운영하며 글을 쓰고 있다.

·
일러스트
황인찬

밤새 비 내리는 장마철이다. 어스름한 새벽, 하늘 가득한 잿빛 구름에 열은 주황빛이 감돈다. 다시 눈을 감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흘러가는 길이 아득하게 펼쳐진다. 세골세골 모여든 빗물이 도랑을 타고 흘러 골짜기로 모이고, 골짜기로 흐르던 물이 개천을 타고 흘러 강으로 모인다. 밤새 내린 빗물이 강으로 모여 주황색 바다로 넘실넘실 달려간다. 나는 그 끝, 주황색 바다와 잿빛 바다가 만나는 갯마을에서 낚고 자라 여태 코를 박고 살고 있다.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오른쪽으로는 너른 들을 품은 수산리가, 왼쪽으로 너른 갯벌에 안긴 어은리가 자리해 있다. 수산리, 오곡리, 어은리 모두 만경강이 낳은 땅이다. 수산리 앞의 너른 들은 만경강을 막아 간척한 땅이고, 오곡리 앞의 염전 또한 만경강을 막아 만들었다. 어은리는 만경강 갯벌에서 나는 것들을 잡아먹고 살던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마을이다. 강은 살을 헐어 그 땅에 이름을 주었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낚고 키우고 살리고 돌려보냈다.

어린 시절, 요즘처럼 비 내리는 장마철이 되면 동무들과 함께 오곡리에서 어은리로 흐르는 개천으로 나갔다. 개천은 흘러 어은리 앞 만경강으로 빠져나갔는데 밀물에는 바닷물이 들어와 머물렀기 때문에 흙은 짜고 흐르는 물은 싱거웠다. 우리는 개천의 흙에서 모시조개를 캐고 게를 잡았고, 물에선 모기장으로 만든 뜰채를 펼쳐 실장어를 건어 올렸다. 이것들을 잡아 집에 들고 가면 어미는 모시조개로 국을 끓이고, 게는 장을 담고, 실장어는 말려 조림으로 만들어 먹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구하기 어려워 kg당 몇 천 만 원을 호가한다는 실장어를 멀치 조림하듯 조리 먹었다. 그렇게 실장어를 많이 잡았는데도 모기장을 빠져나간 치어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모양이다. 흐르는 물을 타고 올라간 실장어는 개천에서, 저 수지에서, 도랑에서, 때때로 깊은 산속 맑은 계곡에서도 어엿하게 장어로 자라 그 검은 몸을 휘감으며 반짝거렸다.

내 어미는 수산리의 오른쪽에 위치한 월연리에서 낚고 자라 내 아버지의 고향인 오곡리로 시집왔다. 어미의 유년기 기억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월연리 또한 만경강에 기대 사는 사람들의 땅이기 때문일 것이다. 강에 나가 조개 캐고 게 잡아 반찬 삼았고, 수로에선 장어, 메기, 가물치 따위를 잡아 국을 끓여 먹었다. 어미는 60년도 더 전의 일을 화색이 되어 어제 일처럼 회상하신다.

“어름이 장마지른 강에 살던 장어 새끼들이 뿔(개천)물 따라 안 올라오냐. 그렇게 올라온 장어들이 논바닥이고 또랑이고 뜰이고 간에 득실득 실혔어. 그렇게 가을까지 큰 장어가 때 되든 바다로 내려가는데 그 길목을 막고 물을 빼문 그 안에 장어야 메기야 가물치야 뭐야 그득그득 안 허냐. 그러든 느그 외삼촌이랑 동네 남자들이 뜰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잡아내는데 뱃대지 누런 장어가 니 팔뚝만 허. 가물치는 니 장단지만 헐 것이다. 맛은 장어가 제일 좋지. 그놈을 큰 가마솥이다 그득 넣고 푹푹 끓여서 장어탕을 끓이면 기막히게 맛있었니라. 찢든찢든 허니 입에 짹짹 붙는 게 별미 중에 별미였어.”

어미는 먹는 방법을 아버지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개천 바닥을 콘크리트로 정비하기 전에는 대부분 진흙이었다. 장어는 물 아래 진흙에 구멍을 내고 몸을 숨긴다. 구멍은 앞뒤로 두 개가 나 있다. 한쪽은 꼬리가 한쪽에는 머리가 향해있는 구멍이다. 가만히 보면 머리 있는 구멍에서 작은 거품이 올라오는 게 보인다. 기다란 장대 끝에 낚싯바늘 모양의 갈고리를 달아 거품이 올라오는 구멍에 살며시 넣고 앞으로 잡아당기면 장어가 쾅어 나온다.

실장어로 만든 조림을 먹었던 기억, 장대로 장어를 낚았던 기억 모두 10세 이전의 일이다. 그 후로는 실장어가 눈에 띄지 않았고 물이 탁해져 개천 바닥이 보이지도 않았다.

나는 지금 아버지와 어미가 물려준 땅에서 농사짓는다. 한때 살충제, 제초제로 뒤덮였던 땅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 눈에는 우렁이가 기어 다니고, 물벼룩이 통통거린다. 개구리도 폴짝거린다. 모 때우는 손 등에 거머리가 늘러붙어 피를 빨다. “내 이놈” 하며 거머리를 털어내고 허리 펴고 고개 들어 멀리 만경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다. 풍천. 강에서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밀물이 드는 시간인 모양이다. 그 밀물 타고 올라온 실뱅장어 내 눈에 들어 물벼룩, 거머리, 우렁, 피리, 개구리 잡아먹고 검은 등, 누런 배 반짝거리며 유유히 헤엄칠 날 오려나. 그러나 그 소망 요원하다. 모든 땅에 우렁이, 개구리, 거머리 득실거려도, 모든 수문이 열려 강물이 들락거리고 진흙이 들어찬데도 장어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저 아래 거대한 방조제에서 밀물이 막혔으니 바닷물과 장어도 그 언저리에서 휘둘다 고개 숙이고 돌아갈 것이다. 그 방조제 넘어설 수 있는 바람이나 겨울 풍천 행세를 할 테지.

작년 여름, 기력이 쇠한 어미가 몸져누워 밥술을 뜨지 않았다. 뭐라도 입에 맞는 걸 먹자며 장어탕 한 그릇 하러 나서자니 두말 않고 텅고 일어났다. 장어탕으로 유명해서 사시사철 문전성시를 이루는 식당이었음에도 어미는 장어탕을 뜨는 등 마는 등 하곤 손가락을 내려놓았다.

“이런 것도 장어라고...”



2018년도 전사 리더 워크숍

“2018년도 전사 리더 워크숍”이 지난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전남대 장성수련원에서 개최됐다. 우리 회사 박성철 사장을 비롯한 보직자 이상의 우리 회사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영 혁신 달성을 위한 대응계획 발표, 주제별 개별토론과 그 결과에 대한 발표, 대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토론은 민간 일자리창출 방안, 미래성장사업 발굴, 목적사업과 사회적 가치 연계 등 사회적 가치와 미래성장사업에 관련된 5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2018년도 한전KDN 기술경진대회

“2018년도 한전KDN 기술경진대회”가 지난 7월 12일 나주 본사에서 개최됐다. 전력ICT분야의 실무역량을 강화시키고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통신분야와 배전분야로 나뉘어 각각 진행됐으며, 배전분야의 경우 배전지능화와 배전공가 등의 세부 분야로 다시 한번 나뉘어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기술경진대회의 수상자는 모두 6명이다. 먼저, 통신 분야 최우수상은 강남지사 이승민 과장과 이정환 대리가, 우수상은 강원지역본부 한석희 대리와 박광철 대리가 차지했다. 또한 배전지능화 분야 최우수상은 대전충남지역본부 남창모 대리가, 우수상은 경북 지역사업처 권오형 대리와 대전충남지역본부 박윤형 주임이 각각 상을 거머쥐었다. 마지막으로 배전공가 분야에서는 강원지역본부 인용성 직원이 최우수상을, 강북지사 김강희 대리와 강릉지사 최기만 대리가 각각 후원상을 수상했다. 한편,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는 배전 분야 기술력을 강화하고 우수인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우리 회사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한국전력공사가 후원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기술경진대회다.



차세대 인프라 보안 워크숍

지난 7월 13일, 서울 엘타워에서 “차세대 인프라 보안 워크숍”이 개최됐다. 우리 회사와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7회째 공동개최하고 있는 본 워크숍은 국정원,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박성철 사장은 “북미 정상회담 등 긴장감이 높아지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러한 시점에 ‘차세대 인프라 보안 워크숍’이 개최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본 워크숍이 에너지 기반시설 사이버 보안 분야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에 관한 국토연구원 이재용 본부장의 강연과 “스마트 팩토리와 사이버보안”에 관한 건국대학교 한근희 교수의 강연 등 2건의 초청 강연이 진행됐으며, 우리 회사 전력보안연구팀 현무용 차장의 “스마트 팩토리 보안기술”에 관한 발표 등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팩토리>에 관한 8건의 발표가 있었다.



2018년도 상반기 에너지밸리 투자 유치 ICT기업 간담회

“2018년도 상반기 에너지밸리 투자 유치 ICT기업 간담회”가 지난 7월 6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박성철 사장을 비롯한 우리 회사 임직원과 그리드텍 등 약 25개 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ICT중장기 비전과 하반기 발주계획, 상생협력제도 등 협력분야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에너지밸리 이전과 정착에 관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에너지밸리에 입주해있는 ICT기업들과의 상생협력을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AI 기술인력 양성 기본 교육 시행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9일까지 “AI 기술인력 양성 기본 교육”이 실시됐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도약시키기 위해 광주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AI 전문가로 성장을 계획하고 있는 교육 신청자 중 선발된 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세부 교육 내용으로는 <AI,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에 관한 기초 이해>, <파이썬 기반의 텐서플로우 이용법>, <Regression, Classification, CNN, RNN 등에 관한 이론 및 실습> 등이 있으며, 강의를 지난 6월 26일부터 4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됐다. 한편, 우리 회사와 광주과학기술원은 지난 3월 22일 “인공지능 분야 MOU”를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서로 보유한 강점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상호 긴밀한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018년도 하반기 4차산업혁명 신기술 ICT 외부공개교육과정 시행

지난 7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우리 회사와 한국ICT융합협동조합은 “2018년도 하반기 4차산업혁명 신기술 ICT 외부공개교육과정”을 실시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핵심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상생을 토대로 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광주-전남 혁신도시 내 이전 기업의 재직자와 광주-전남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본 교육은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활용한 IoT서비스 구현”, “아두이노 디바이스 프로그래밍”, “시큐어코딩 In Java”, “VR/AR 구현을 위한 Unity 완성”,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콘텐츠 개발” 등 5가지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한국ICT융합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한 본 교육과정은 지난 상반기에도 진행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청렴공모전 포스터 분야 수상작

with KDN



최우수상
경기북부지역본부
김현수 대리, 배우자 김영민



우수상
인사팀
김훈재 차장, 자녀 김현준



우수상
부산울산지역본부
김한별 직원



비상재난안전팀
김명호 과장



경영관리팀
장혜영 대리



배전지능화팀
심종탁 대리

다른 그림 찾기

지난호 당첨자
외부 독자
유재범, 최형석, 박종대, 박세경



Kdn Life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동료와 함께 보고 싶은 영화나 공연을 신청해주세요.



Happy Family(가족에게 보내는 응원 편지)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홍보문화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다른 그림 찾기의 답을 찾아 보내주세요.

참여하신 분 중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때 주소와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보내실 곳: sinai_035@kdn.com